‘친절·안전한 대중교통’ 나주시, 지역 운수업체와 상생 협약

버스·택시 대표들과 수요자 중심 교통서비스 증진 협력
승차 거부·난폭 운전 등 발생 않토록 각별한 관심 부탁

“올 한 해 친절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약속합니다”

나주시와 지역 운수업체(버스·택시)가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나주시는 지역 버스, 개인·법인 택시 업체 대표들과 ‘수요자 중심 교통서비스 증진’을 목표로 한 상생 협약식을 했다고 4일 밝혔다.

협약식엔 윤병태 나주시장, 류진영 (주)나주교통 대표이사, 박두석 전라남도 개인택시운송조합 나주시지부장, 이재환 나주시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이 참석했다.

나주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공정한 기준으로 친절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 당사 업체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특히 승객 승차 거부, 무정차, 난폭운전 등 대중교통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운수업체 대표들은 수요자 중심의 교통서비스 증진이라는 공통분모 아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 안내, 안전한 목적지 운행 등을 상호 다짐했다.

㈜나주교통은 노선별 각 경유지 시간표 준수, 원활한 환승, 차량 시설 정비와 교통 불편 서비스 개선사항에 대한 신고 체계 마련에 나선다.

개인·법인택시는 교통약자 위한 ‘100원 택시’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했다. 교통약자 중심의 우선 배차를 통해 대기시간을 줄이고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시는 ‘친절운행 서비스 모니터링단’(가칭) 운영을 통해 운수업체 교통서비스, 친절도를 중점 점검하고 모범 종사자 표창 등으로 대중교통 질적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버스와 택시는 차가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시민의 발과 다리 역할과 같다”며 “친절한 서비스는 물론 민선 8기 대중교통 노선 개편의 안정적인 정착과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수업체 대표, 종사자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나주=기동취재본부

구례군, ‘삼대삼미 도시재생 공동브랜드 개발

구례군은 1월 5일 구례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2023 삼대삼미 공동브랜드 개발·도시 브랜딩’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3년 11월 22일부터 2024년 1월 5일까지 총 6번에 걸쳐 진행됐으며, 주민 12명이 수료했다.

군은 더하다 디자인연구소 김민식 대표를 초빙해 주민 스스로 브랜드를 기획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주민이 원하는 색상과 형태가 담긴 도시 디자인을 개발하여 각종 사업 대상지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군은 주민 맞춤형으로 제작된 기본 디자인을 바탕으로 응용 디자인을 더욱 발굴할 예정이며, 이를 보행환경 조성 사업 등에 적용할 예정이다.

교육 수료생들은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획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차별화된 디자인을 발굴·개발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교육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김순호 군수는 “주민들의 열정이 담긴 디자인이 구례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구례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곡성군, 계약원가 심사로 36억원 예산 절감

내실 있는 계약심사로 재정 건전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곡성군이 지난해 계약심사 제도를 운용해 36억 원의 예산 절감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공사, 용역, 물품 등 총 251건의 사업을 심사해 공사 34억 원, 용역 7,200만 원, 물품 1억 3,800만 원을 절감했다. 이는 전년도 2022년 발주사업에 대한 계약심사 절감금액 5억 원에 비해 크게 실적이 향상된 것이다.

곡성군은 2023년 1월 민선8기 조직개편과 함께 신속하고 합리적인 계약심사업무 추진을 위해 계약심사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원가 산정 및 산출 물량의 적정성을 전담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곡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심사단계에서 관내업체를 반영해 29건 6억 5,600만 원을 변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규정상 10일 처리기한을 평균 3일로 축소하여 신속집행을 지원하였다.

곡성군 계약심사 담당자는 “올해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성숙한 계약심사업무 추진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곡성=양해영 기자

담양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 선정

거동불편 어르신 찾아가 의료서비스 제공

담양군은 보건복지부 주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담양군 보건소가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구성해 수급자의 건강 상태, 치료에 대한 욕구, 주거환경 등에 따라 방문진료, 간호 및 지방자치단체 돌봄자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결국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는 걸 방지하는 게 목표다.

재택의료팀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해 보건소 1팀과 보건지소 11팀을 운영하며, 의사는 월 1회 이상 진료,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간호, 사회복지사는 주기적 상담을 통한 요양·돌봄 수요 발굴 및 연계 등을 제공한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담양군에 실질적 가족 돌봄이 없는 어르신이 노인인구의 35%,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자가 2,100여 명이다”라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과 더불어 찾아가는 주민건강 지킴이, 우리마을 주치의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고향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담양형 향촌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장성군, 농업 기반시설 안전관리 유공 ‘장관 표창’

전문기관에 의한 분기별 저수지 정기점검 시책사업 등 ‘우수’ 평가

장성군이 지난해 말, 농업생산 기반시설 안전관리 및 재해대비 안전성 확보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저수지 등 수리시설 개보수 △침수지역 배수 개선 △경지정리지역 시설개선 △농업용수 자원관리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 안전관리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장성군은 현재 저수지 72개소, 양수장 4개소, 집수암거 30개소, 취입보 28개소, 농업용 관정 125공을 관리 중이다. 특히 저수지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전문기관에 의뢰해 시설물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시책사업을 시행했다.

영농 안전 기반도 마련했다. 국도비 포함 1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북일 신흥지구 배수개선사업 △삼서 소룡지구, 황룡 맥호지구, 북하 성암지구 경지정리지역 시설개선사업 △농업용 대형관정 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해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삼아, 새해에도 농업인이 안전하게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수권 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강판
포스코SPS 포스코엠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널 포스코A&C